



## 행 사 일 정

---

13:50 ~ 14:00 등 록

---

14:00 ~ 14:10 개 회 사

- 인사말 : 백용호(서울시정개발원구원장)

---

14:10 ~ 14:50 주제 발표

권두승(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 명지전문대 교수)

---

14:50 ~ 15:00 휴 식

---

15:00 ~ 16:30 토 론

- 사회자 : 조권중(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 토론자 : 김남선(영남평생교육학회 회장, 대구대 교수)

김미숙(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신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기(대전평생교육연합회 회장, 대전대 교수)

---

16:30 ~ 16:40 종합정리 및 폐회

---

주제발표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 연구

---

권 두 승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 명지전문대학 교수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 연구

권 두 승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 명지전문대학 교수)

##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지식기반화, 전문화, 고령화, 지역해체화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이다. 지식사회는 곧 바로 ‘사람’과 ‘지식’, 곧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전문화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에 있어서의 특정 계층을 전제로 하고, 이는 다시 지식격차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의 복지 및 교육의 문제를, 지역해체화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여가사회도래 및 생산성 증대 요구, 교실붕괴·교육이민으로 대표되는 공교육 위기 등 사회변동 차원의 총체적인 문제 대두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문제를 지역의 핵심과제로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공동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학교 운영 방안 탐색 차원에서 학교 주5일제 도입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학생은 지역사회로, 지역 주민은 학교로 맞교환하는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이나 선진 도시들을 평생학습의 문제를 핵심과제로 부각시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선진국에 비해 늦게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서울시에서도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각 부서별로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평생학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학계의 연구도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서울시민들의 교육요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 차원의 평생학습 관련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종합 발전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조사는 서울특별시 2004년 12월 주민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비례할당 추출된 만25세에서 만64세 이하의 일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다. 단, 대학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문 면접원이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1:1 개별면접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응답 설문지에 대한 엄격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후 최종 유효표본 1,000명을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이다.

<표 1>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설계

조사 대상	2005년 4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5세~64세 이하 일반 성인 남·녀 (단, 대학(원)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 지역	서울
조사 방법	1:1 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표본 추출	구별×성별×연령별 만25세~64세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Proportional Quota Sampling)
표본 크기	총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P$ )
조사 기간	2005년 3월 2일 ~ 3월 31일 (30일 간)

### 3. 조사내용

본 조사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평생학습 참여 실태, 평생학습 참여 요구, 서울시의 평생학습 정책 활성화에 대한 의견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네 가지 주제별 조사항목에 관한 구체적 설문항목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설문항목의 구성

조사 영역	조사 항목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평생학습의 중요성 평생학습 중요/비중요 인식 이유
평생학습 참여 실태	평생교육활동 참여 경험 평생학습 교육 참여 목적 평생학습 교육 참여 분야 평생학습 교육 참여 장소 평생학습 교육 진행 방식 평생학습 교육 참여 시 월평균 소요비용 평생학습 교육관련 정보원천 평생학습 교육 참여 후 도움 정도 평생학습 교육 비참여 이유
평생학습 참여 요구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의향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결정요인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분야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희망기관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희망 교육형태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적정 기간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적정 거리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적정 비용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애로사항
서울시의 평생 학습정책 활성화에 대한 의견	서울시 교육 기관의 평생학습 활성화 노력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인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교육분야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관 투자 분야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활성화를 위한 필요 교육시설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 대상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활성화에 대한 의견

## 4. 응답자 특성 분석

최종 유효표본 1,000명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포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 분포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구성비(%)	전체	사례수(명)	구성비(%)	
전 체		1,000	100.0	구로구	41	4.1	
성 별	남 성	498	49.8	금천구	26	2.6	
	여 성	502	50.2	영등포구	40	4.0	
연령별	25-29세	156	15.6	동작구	45	4.5	
	30-34세	168	16.8	지역별 관악구	52	5.2	
	35-39세	142	14.2	서초구	39	3.9	
	40-44세	145	14.5	강남구	56	5.6	
	45-49세	136	13.6	송파구	59	5.9	
	50-54세	101	10.1	강동구	45	4.5	
	55-59세	86	8.6	도심권	56	5.6	
	60-64세	66	6.6	동북권	326	32.6	
지역별	종로구	16	1.6	권역별 <sup>1)</sup> 서북권	117	11.7	
	중구	16	1.6	서남권	302	30.2	
	용산구	24	2.4	동남권	199	19.9	
	성동구	32	3.2	학력별	초등학교	24	2.4
	광진구	37	3.7		중학교	48	4.8
	동대문구	38	3.8		고등학교	567	56.7
	종랑구	41	4.1		대학교	361	36.1
	성북구	45	4.5	직업별	화이트칼라	234	23.4
	강북구	37	3.7		블루칼라	187	18.7
	도봉구	36	3.6		자영업	267	26.7
	노원구	60	6.0		주부	278	27.8
	은평구	46	4.6	무직/기타	34	3.4	
	서대문구	34	3.4	소득별	200만원미만	116	11.6
	마포구	37	3.7		200-299만원	413	41.3
	양천구	45	4.5		300-399만원	327	32.7
	강서구	53	5.3		400만원이상	144	14.4

- 1)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종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5. 연구조사 결과

### 1)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 ■ 평생학습 중요성에 대한 인식 매우 높으나, 도심권 거주자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 다소 필요

서울시민들 10명 중 9명 이상(95.2%)이 평생학습이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학습 교육 경험자(287명)의 중요도 비율은 99.3%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평생학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자기계발·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기 때문(36.1%)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을 보람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30.9%)에, 급속한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21.3%)에, 직업관련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얻을 수 있기 때문(11.7%) 등이 다음 순으로 응답되었다.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의 경우 평생학습의 중요성 이유로 '여가시간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반면, 평생학습이 삶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4.8%(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응답의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3.3%), 실생활에 도움이 안돼서(33.3%)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60세 이상(10.6%), 중구(18.8%), 용산구(16.7%) 등 도심권(14.3%) 지역에서 중요치 않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표 4> 평생학습의 중요성

응답 항목	%
매우 중요하다	30.3
중요한 편이다	64.9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4.7
전혀 중요하지 않다	0.1
	95.2
	4.8



<표 5> 응답자 특성별 평생학습의 중요성

		사례수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별로 중요안함	전혀 중요안함	긍정적	부정적
전 체		1000명	30.3%	64.9%	4.7%	0.1%	95.2%	4.8%
연령별	25-29세	156	28.8	67.3	3.8	0.0	96.2	3.8
	30-34세	168	32.1	63.1	4.8	0.0	95.2	4.8
	35-39세	142	32.4	62.0	5.6	0.0	94.4	5.6
	40-44세	145	24.8	70.3	4.8	0.0	95.2	4.8
	45-49세	136	40.4	57.4	2.2	0.0	97.8	2.2
	50-54세	101	23.8	71.3	4.0	1.0	95.0	5.0
	55-59세	86	32.6	62.8	4.7	0.0	95.3	4.7
	60-64세	66	22.7	66.7	10.6	0.0	89.4	<b>10.6</b>
지역별	종로구	16	37.5	56.3	6.3	0.0	93.8	6.3
	중구	16	31.3	50.0	18.8	0.0	81.3	<b>18.8</b>
	용산구	24	12.5	70.8	16.7	0.0	83.3	<b>16.7</b>
	성동구	32	18.8	75.0	6.3	0.0	93.8	6.3
	광진구	37	51.4	48.6	0.0	0.0	<b>100.0</b>	0.0
	동대문구	38	26.3	73.7	0.0	0.0	<b>100.0</b>	0.0
	중랑구	41	36.6	58.5	2.4	2.4	95.1	4.9
	성북구	45	17.8	80.0	2.2	0.0	97.8	2.2
	강북구	37	54.1	45.9	0.0	0.0	<b>100.0</b>	0.0
	도봉구	36	0.0	94.4	5.6	0.0	94.4	5.6
	노원구	60	8.3	73.3	18.3	0.0	81.7	<b>18.3</b>
	은평구	46	32.6	63.0	4.3	0.0	95.7	4.3
	서대문구	34	67.6	32.4	0.0	0.0	<b>100.0</b>	0.0
	마포구	37	8.1	86.5	5.4	0.0	94.6	5.4
	양천구	45	31.1	57.8	11.1	0.0	88.9	11.1
	강서구	53	35.8	52.8	11.3	0.0	88.7	11.3
	구로구	41	31.7	61.0	7.3	0.0	92.7	7.3
	금천구	26	38.5	57.7	3.8	0.0	96.2	3.8
	영등포구	40	42.5	57.5	0.0	0.0	<b>100.0</b>	0.0
	동작구	45	22.2	77.8	0.0	0.0	<b>100.0</b>	0.0
관악구	52	34.6	65.4	0.0	0.0	<b>100.0</b>	0.0	
서초구	39	41.0	59.0	0.0	0.0	<b>100.0</b>	0.0	
강남구	56	32.1	67.9	0.0	0.0	<b>100.0</b>	0.0	
송파구	59	42.4	55.9	1.7	0.0	<b>98.3</b>	1.7	
강동구	45	11.1	84.4	4.4	0.0	95.6	4.4	
권역별 <sup>주)</sup>	도심권	56	25.0	60.7	14.3	0.0	85.7	<b>14.3</b>
	동북권	326	25.5	69.0	5.2	0.3	94.5	5.5
	서북권	117	35.0	61.5	3.4	0.0	96.6	3.4
	서남권	302	33.4	61.6	5.0	0.0	95.0	5.0
	동남권	199	32.2	66.3	1.5	0.0	<b>98.5</b>	1.5

주)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 평생학습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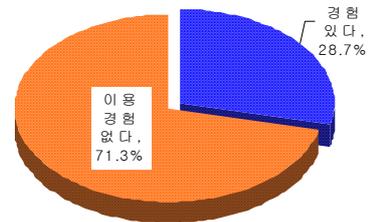
### ■ 평생학습 참여경험 28.7%, 참여목적 '개인적 관심' 71.4%

서울시민의 28.7%가 평생교육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목적으로는 개인적 관심(71.4%) 때문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여성(34.7%), 25-29세(34.6%), 동남권(37.2%) 지역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참여자들의 비율은 71.3%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65.6%)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특히 비참여자들 중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0~44세(80.4%), 서북권(72.9%) 거주자, 고학력층 및 화이트칼라(79.0%)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6> 평생교육활동 참여 경험

응답 항목	빈도(명)	%
경험	287	28.7
비경험	713	71.3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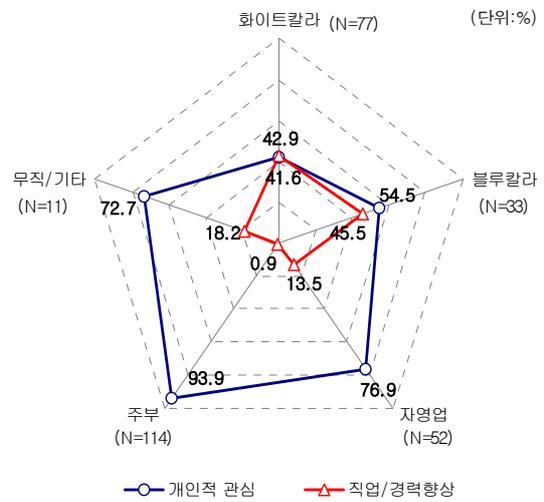
### ■ 건강·보건·스포츠 참여 분야 가장 높으며, 강의식 교육 활발

평생학습 참여분야로는 건강·보건·스포츠 관련분야가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취미·오락·여가 관련분야(29.6%), 취업·직업·경력 관련분야(25.8%), 자기계발 관련분야(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관심 의견은 여성(86.8%),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부(93.9%)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반면, 직업/경력 향상 의견은 남성(38.1%), 30-34세(35.8%), 화이트칼라(42.9%) 및 블루칼라(45.5%)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 직업별 평생학습 교육 참여 목적 >



교육 참여시 장소로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터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직업·경력 관련교육의 경우 사설학원이나 현직교육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진행방식 또한 강의나 세미나, 워크샵 응답비율이 월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교육 현실에 익숙한 강의식 교육이 가장 높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평생학습 교육 참여 장소

응답 항목	사례수 (명)	사설 학원	현직 교육	연수 원	학교, 대학	비영리 단체	주민 자치 센터	온라인	문화 센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종교 단체	병원
취업, 직업, 경력 관련 교육	74	28.4	25.7	13.5	9.5	6.8	6.8	6.8	4.1	1.4	-	-
기초, 교양, 문화 관련 교육	22	-	4.5	-	18.2	13.6	36.4	4.5	13.6	4.5	9.1	-
시민, 안보, 경제, 사회참여 관련 교육	3	-	-	-	1명	1명	-	-	-	-	-	-
취미, 오락, 여가 관련 교육	85	12.9	-	-	-	4.7	49.4	1.2	29.4	2.4	-	-
건강, 보건, 스포츠 관련 교육	91	17.6	-	-	-	3.3	56.0	-	23.1	-	-	-
학력, 학점 인정 교육	7	-	1명	-	6명	-	-	-	-	-	-	-
자기계발 관련 교육	62	22.6	-	-	11.3	6.5	40.3	8.1	8.1	-	3.2	-
자녀지도 교육	5	-	-	-	-	-	1명	-	3명	-	1명	-
자원봉사 교육	3	-	-	-	-	2명	-	-	-	-	-	1명

※ 상위 6개 항목 응답 기준

교육 지원비를 포함한 월평균 소요비용으로는 대체로 무료나 10만원 미만선이 가장 많았으나 취업·직업·경력 관련 교육에서는 10~30만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경로로 구전효과 높으며, 참여자의 95.1%가 교육효과에 긍정적

평생학습 교육관련 정보취득원으로는 주위의 권유로부터라는 응답이 전 분야에서 대체로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자의 구전에 의한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보이고 있는 건강·보건·스포츠 분야의 경우 전단지나 포스터, 플랭카드 등에 의한 정보 인지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반면, 가장 큰 과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송매체나 인쇄매체의 의존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표 8> 평생학습 교육관련 정보원천 (단위:%)

응답 항목	사례수 (명)	방송 매체	인쇄 매체	인터넷 이용	전단지, 포스터, 플랭카드	주위의 권유	종교 단체
취업,직업,경력 관련 교육	74	2.7	6.8	32.4	12.2	44.6	1.4
기초,교양,문화 관련 교육	22	9.1	18.2	22.7	27.3	18.2	4.5
시민,안보,경제,사회참여 관련 교육	3	-	1명	-	-	2명	-
취미,오락,여가 관련 교육	85	7.1	15.3	7.1	29.4	41.2	-
건강,보건,스포츠 관련 교육	91	4.4	13.2	9.9	41.8	30.8	-
학력, 학점 인정 교육	7	-	1명	2명	-	4명	-
자기계발 관련 교육	62	9.7	21.0	16.1	17.7	33.9	1.6
자녀지도 교육	5	-	1명	-	1명	3명	-
자녀봉사 교육	3	1명	-	-	-	2명	-

※ 상위 6개 항목 응답 기준

한편 서울시민의 95.1%가 교육 참여 후 직장, 경력, 실생활 등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육 참여를 통한 높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연령층일수록 교육효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피력하고 있어 평생학습 취지에 대한 당위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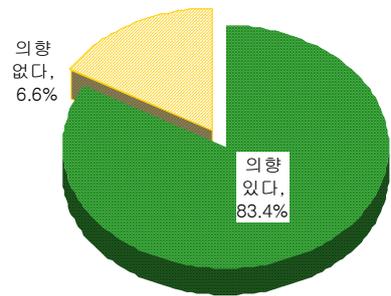
### 3) 평생학습 참여 요구

#### ■ 다양한 시간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별 저변확대 필요

향후 평생학습 참여 의향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83.4%)이 긍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88.5%) 연령층과 동남권(90.5%) 지역의 참여의향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의향

응답 항목	%
참여할 의향이 많이 있다	29.6
참여할 의향이 다소 있는 편이다	53.8
참여할 의향이 별로 없는 편이다	11.4
참여할 의향이 전혀 없다	5.2
	83.4
	16.6



평생학습 참여 의향자들(834명)은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종류'(37.1%) 및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24.9%)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45.3%)을 프로그램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10>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결정시 중요 요인

응답 항목	빈도수(명)	%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종류	309	37.1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208	24.9
거주지에서 교육기관까지의 거리	14	16.9
교육비 부담 정도	186	10.3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성 정도	52	6.2
교육수료 이후 사회적 활동이나 인정도	31	3.7
졸업장이나 자격증 취득 정도	7	0.8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설로 학습자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과 시간대를 다양하게 하여 여유시간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평생학습 참여의 가장 큰 관건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에 대한 저변확대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시간대를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참여의향이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서남권(76.5%) 거주자에 대한 평생학습 중요성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 건강 및 여가관련 교육분야 활성화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선호 분야로 건강·보건·스포츠 관련 교육(57.2%)과 취미·오락·여가 관련 교육(50.5%)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 지도 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열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분야

응답 항목	빈도수(명)	%
건강·보건·스포츠 관련 교육	477	57.2
취미·오락·여가 관련 교육	421	50.5
자기계발 관련 교육	247	29.6
취업·직업·경력 관련 교육	184	22.1
기초·교양·문화 관련 교육	132	15.8
자녀 지도 교육	64	7.7
자원봉사 교육	40	4.8
시민·안보·경제·사회참여 관련 교육	37	4.4
학력·학점 인정 교육	27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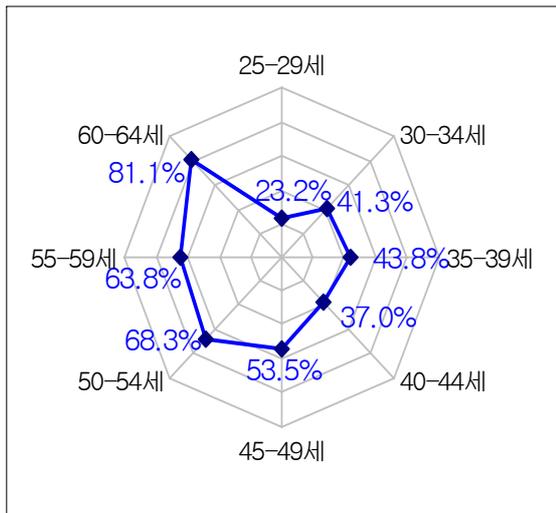
※ 중복응답

한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관으로는 주민자치센터·구민회관 선호의견이 46.8%로 대학(12.0%)이나 사설학원(7.3%) 등 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비 절감이나 이동 소요 거리 등의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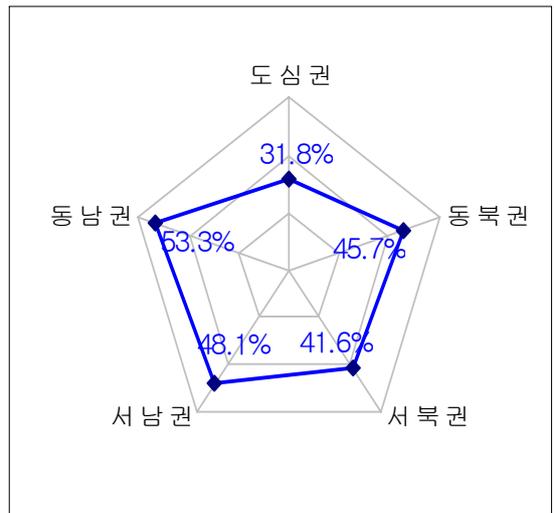
<표 12>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희망기관

응답 항목	빈도수(명)	%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390	46.8
학교 또는 대학	100	12.0
문화센터	96	11.5
비영리 단체	78	9.4
사설학원	61	7.3
현직교육	50	6.0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24	2.9
온라인	22	2.6
연수원	13	1.6

<연령별 주민자치센터·구민회관 선호비율>



<권역별 주민자치센터·구민회관 선호비율>



서울시민의 80.7%가 희망 교육 형태로 교실수업이나 강의, 세미나, 워크샵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기간으로는 1~3개월미만(24.3%)과 3~6개월미만(34.5%)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거주지에서 교육기관까지의 적정 이동시간으로는 10분 이내 33.3%, 10~30분 이내 58.8%로 '30분 이내의 선호율이 9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비용은 무료 21.2%, 10만원 미만 66.5%로 전체 87.7%가 10만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서울시의 평생학습정책 활성화에 대한 의견

##### ■ 보다 가시적인 정책 홍보 필요, 관련시설 보다 교육의 질 우선

평생학습정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 56.2%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 또한 43.8%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평생학습정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1순위(29.9%)와 종합순위(47.9%)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시설확충 및 정비(1순위 16.4%, 종합 30.8%), 참여 기회 확대(1순위 15.7%, 종합 32.4%),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대(1순위 15.1%, 종합 3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취미·여가에 대한 관심 높으며, 프로그램 관련 투자 요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교육 분야로 개인 취미 여가교육(37.6%)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직업기술교육(23.8%), 기초교양교육(21.1%), 시민공동체 생활 필요교육(1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분야로는 프로그램의 질 측면(25.2%)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측면(23.3%)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인력이나 시설, 예산지원보다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필요한 교육시설로 서울시민들은 성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센터(36.8%)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서 체육시설(13.0%), 가족공원(10.2%)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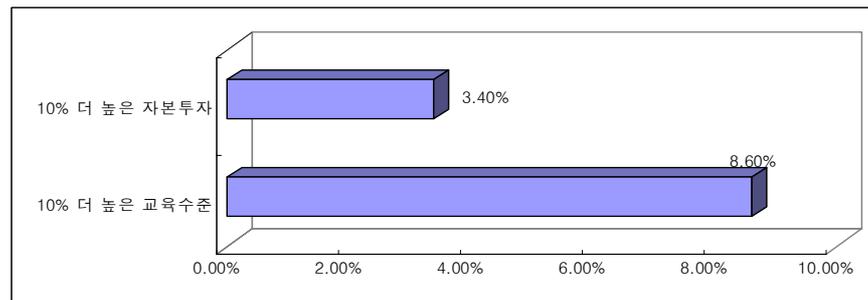
##### ■ 활성화를 위해 중년·주부층 타겟,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적극 홍보 필요

향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정책 추진 대상으로 중년층(17.4%)과 주부(17.4%) 계층 지적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노년층(14.9%), 직장인(13.9%), 청소년층(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3.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6.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1) 서울시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 정책 확대

서울시민의 대다수(95.2%)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매우 중요 30.3% + 중요한 편 64.9%)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실제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경우는 28.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4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전국 표집단위의 경우 23.2%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곧바로 지역의 인적자원(HRD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습을 통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학습사회로의 발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Becker, 1993), 학습 참여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고(OECD, 2003), 학습 참여율이 높을수록 국민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OECD, 2003; 최돈민, 2004),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이 개인, 조직,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면서부터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유형자산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창조성·창의력에 기초한 지식이 부가가치 생산의 주요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그림 IV-1]에서와 같이 평균 교육 수준보다 10% 더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력을 보유한 조직들은 평균 생산성 수준보다 8.6% 더 높은 생산성을 보였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균 수준의 자본투자보다 10%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한 조직들은 단지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균 이윤보다 3.4%의 이윤 증대밖에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그림 1] 교육과 자본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 비교

그런데,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시민들의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사이에 커다란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의향이 83.4% 정도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참여유인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60세 이상

자나 도심권 지역의 거주자들이 전체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14.3%) 있는 점을 감안하고,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지역의 주민들이 평생학습 참여의향이 높은데 비하여 서남권(양천 62.2%, 구로 65.9%, 금천 61.5%) 지역주민들이 전체 평균(83.4%)에 훨씬 못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특정 지역과 특정 연령층에 대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OECD 선진 각국 및 도시에서도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성인의 지속적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시정개발의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각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2) 평생학습 관련 시설의 대폭적인 정비확충

조사 결과, 평생학습 비참여자들의 비율이 71.3%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65.6%이고, 가까운 곳에 교육기관이 없거나 신뢰가 가는 교육기관이 없거나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이유가 6.2% 정도인 것을 고려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위한 정책으로 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1순위 16.4%, 종합 30.8%) 나타났다.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의향이 높은 서남권(23.5%), 도심권(21.4%) 지역과, 시간적 여유 등의 문제로 평생학습 비참여율이 높은 서북권(72.9%; 은평 81.1%, 마포 79.2%)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별로 평생학습 참여장소를 분석하여 보면, 도심·동북·서남권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참여도가 높은 반면, 학교나 대학·문화센터,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학습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중요요인으로 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지적하는 경우가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층과 저학력층, 그리고 송파·강동구 등 동남권 거주자(22.1%)들이 관련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평생학습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들로 하여금 평생학습시설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으며(Cross, 1982; Merriam & Brockett, 1997), 선진 학습도시나 일본 동경의 경우, 기초지역(동단위) 수준에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시정차원에서 평생학습기회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시설의 정비·확충과 관련하여 일본의 공민관·평생학습센터, 미국

의 21세기 학습센터 등과 같은 지역중심의 학습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평생학습 시설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기존의 평생학습 관련시설들도 시설의 인텔리전트화와 함께 네트워크의 촉진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가 하다고 본다.

### 3)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및 상담기회 확대

평생학습의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있어서는 그 어떤 변인보다도 평생학습 참여경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Merriam & Brockett, 1997), 참여경험이 있는 자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향후 참여의향이 98.3%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졸업자의 8.3%, 중졸자의 10.4%, 고졸자의 22.8%, 대졸자의 41.8%가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동남권(37.2%)과 도심권(33.9%) 지역주민이 평생학습 참여율이 전체적인 비율보다 높고, 동북권(24.5%)과 서북·서남권(각각 27.4%, 27.2%)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시 애로사항으로서 교육에 대한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경제적인 문제의 10.8%보다 많은 1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특정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 시설에 접하는 접근상의 문제도 있지만, 학습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 관련 정보 취득원으로서 주위의 권유를 통해 평생학습 기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비중있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자의 구전에 의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44.6%),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도 32.4%에 이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생학습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평생학습 정보를 수집·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의 각종 평생학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보를 DB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 4)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비록 현재 수준에 있어서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하다고는 하더라도, 평생학습 참여의지는 10명중 8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생학습 참

여 의향자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시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종류를 참여결정의 중요요인으로 37.1%가 지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전체의 47.9%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들의 연수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 차원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거나 일부 계층을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이를 선정·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본다.

### 5) 평생학습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고객 마인드화

서울시의 평생학습을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교육의 질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경향(47.9%)을 보이고 있으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하자면,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담당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습자 친화적이고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지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지원체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생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총체적인 질관리(TQM)와 함께, 담당자의 전문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6) 각종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인정체제의 구축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평생학습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인정체제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자원봉사제도와 평생학습 참여를 연계시키는 방안,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체제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평생학습결과를 국가자격 혹은 민간자격과 연계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제를 서울지역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기관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기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별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수렴하고, 그를 통한 질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여성, 노인, 청소년 등 특정 계층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학습자 친화적인 차원에서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하여 취미 및 여가교육, 직업기술교육, 기초 및 교양교육, 시민교육 등의 순으로 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8) 학습자의 참여저해 요인의 제거 노력 강구

평생학습 비참여자가 전체의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자·저소득자·고령자·청소년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시간적·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상에 겪게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9) 학습자 지향적인 총체적 질관리 체제(TQM)의 확보

시민들의 평생학습 저해요인, 활성화 요구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 바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관리이고, 프로그램의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기관차원에서의 총체적 질관리 체제를 확보하고, 그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10)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각종 홍보매체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참여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고, 대부분이 구전효과에 의하여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홍보매체를 개발하여 관련 정보가 학습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토론 1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

김 남 선

대구대학교 교수/평생학습연구소장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김 남 선

(대구대학교 교수/평생학습연구소장)

### 1. 기본전제

- 서울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모범적이다.
- 서울시의 평생교육 시설과 여건은 매우 앞서가고 있다
- 서울시의 평생교육 참여자의 평생교육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따라서 서울시의 평생학습은 우리나라 평생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기둥이 되길 바란다.

### 2. 서울지역단위 평생교육의 활성화 전략

서울시가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

(1) 계획의 구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제2단계 : 평생교육 현황, 요구 및 과제 분석
- 제3단계 : 지역 평생교육 기본 구상
- 제4단계 : 지역 평생교육 추진 체제 설계
- 제5단계 : 지역 평생교육 장단기 계획 수립

(2) 서울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한 모임을 결성

평생교육 추진계획을 실체화시키기 위하여 시청 내에 “평생교육도시 추진 구상 모임”을 결성한 다. 구성원: 전문가, 공무원 현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평생교육 현황, 요구 및 과제분석 방법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지역 의 사회, 문화, 경제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즉, 시 전체의 현황, 자연환경, 사회, 문화, 경 제적 환경에 대한 조사가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가 필요하다. 평생교육기관의 실태 조사는 평생교육기관들의 기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평생교육기관, 단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당 실무자를 면담한다.

(4) 평생교육자원 현황조사

<표 1> 평생교육자원현황 조사 목록

영역	주제	영역	주제	
교육시설	교육시설 총면적	인적자원 관리	강사의 수	
	교육시설 평균 면적		자격요건	
	교육기자재		강사 수준	
교육 재정	교육비용 비율		강사교육	
	교육비용 확보 방안		강사수급방안	
현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중인 프로그램 수		교육 실무자	실무자의 수
	전체사업 중 교육 비율			자격요건
프로그램 운영	홍보방안			실무자 교육
	교육운영 장애요인		봉사자의 수	
	장애 요인 개선방안		자격 요건	
교육 프로그램 질관리	교육지침서 유무	자원 봉사자	모집 방법	
	교육자료 관리		교육 실시	
	교육양식 유무		활용 방안	
	학습자 정보		자원봉사관리	
	교육평가 실시 유무		문제점	
	학습자 상담 유무		지역사회 네트워킹	필요성 여부
		지역사회 네트워킹	연계 기관	
			연계 내용	

(5)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평생교육기관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경영, 교육프로그램의 질 관리, 인적자원관리,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평생교육 기관 실태 조사 영역과 내용

영역	주제	영역	주제
평생교육적 기능 수행여부	기관별 장단점 분석	인적자원 관리	강사
			교육실무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내용	평생교육활성화 방안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인식전환
	교육방법		평생교육 내실화
	교육시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평생교육경영	경영 전략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
교육프로그램의 질 관리	관리 방안		지자체의 역할
			평생교육센터의 설립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도 필요하다. 이것은 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평생교육관련 조례 제정

평생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선결과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제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한다.

평생교육조례의 내용에는 평생학습 체제의 구성 요소, 평생교육추진위원회 구성, 평생교육센터의 역할과 임무, 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침, 평생학습 정책 구현을 위한 예산의 조성과정, 평생학습정책 실천의 주체와 조직, 학습동아리 조직 및 지원 사항 등을 수록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사업소(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센터 등 관련조례를 평생교육체제 속에서 재정비함으로써 평생교육 구조 속에서 체계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3)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만들기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추진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시 사업 전반에 걸친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부서와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센터이다.

#### (1) 전담지원부서의 설치

전담지원부서를 시청과 교육청에 설치하여 평생교육이 종합행정, 지방행정, 복지행정으로서 상호 연계되어 체계적·총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행정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 평생교육 분야 및 사업들을 일원화된 행정 부서로 통합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들 전담지원부서들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활성화 건설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 평생교육 문화 진흥사업
- 평생교육 예산 수립 및 지원
-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 평생교육기관인 시사업소,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교류·협조
-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
- 국내외 평생교육도시 네트워킹
- 청소년, 문화, 환경교육, 복지교육 등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 (2) 서울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적 차원에서의 사업을 개발하여 선도적인 시행을 하며, 지도자를 양성하며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개별 기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및 조언을 행하여 학습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중심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 4) 평생교육 캠페인 전개

평생학습 캠페인의 목적은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평생학습에 참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평생학습 붐을 조성한다. 생활 속의 평생학습문화 만들기 운동, 평생학습토론회, 평생학습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동사업으로서의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가정 만들기, 개인별 평생학습 계획서 작성하기, 학습 카페 만들기 운동 등이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운동으로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전개된다.

전개방법으로는 평생학습 캠페인이 시 차원에서 전개되며 각종 시민조직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평생학습 캠페인지지 및 참가단체 가입을 받고 협력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과 연대하여, 언론매체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그 해의 평생학습 주제에 관련된 표어와 기획기사 연재 및 관련행사를 게재한다.

캠페인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으로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홍보, 평생학습 참여의 촉진, 학습 동아리 활동의 육성과 학습비 지원, 학습도시 홈페이지 운영 등의 방법이 있다.

#### 5) 서울지역학 및 고유 프로그램의 개발

서울지역에 대한 이해가 지역사랑으로 이어져 지역 아이덴티티를 가진 시민이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학 교육의 방법으로는 ① 공무원, 교사, 지역단체 회원, 평생교육실무자, 평생교육강사 등 모든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재와 시청각자료 활용 및 지역기행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강의를 제공한다. ③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모든 시민들이 지역교육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수강생을 발굴하고 확대해간다. ④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만들기를 위해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와 비전을 알고 있는 시민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 6) 서울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 목적은 지역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근원인 지식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에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지역의 생산체제나 지역노동시장의 조직과 기능에 반영된 핵심적인 지식들이나 노하우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따라서 지역은 학습과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공급처이다. 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형태의 지식들은 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역과 밀착된 인적자원 양성과 이들의 정착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독특한 형태의 지식들은 지역 특유의 제도와 사회적 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네트워크 속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체는 그 지역의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며, 지역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 ① 지역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② 지역 산업에 대한 학교의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③ 학습과 산업의 연계된 종합 단지의 육성 ④ 기업과 평생학습관의 네트워크 강화이다.

### 7) 서울지역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의 연계 사업 발굴

학생들에게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일반 성인들에게는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학교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은 연계되어야 한다.

주요내용으로 ① 지역사회학교 모델 개발(지역사회 이해 프로그램, 지역환경개선 프로그램,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지역축제 등) ② 특기·적성교육 지도자 육성·등록·과건 ③ 학생들의 지역봉사활동 ④ 향토교재의 제작 ⑤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개(컴퓨터 교실, 부모독서교실, 탁구교실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⑥ 국제교류사업 등이다.

## 3. 연구자의 연구내용에서 본 정책 방안

### 1) 서울시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 정책 확대

본 내용은 포괄적으로 정책의지와 지원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단,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그 전략이 좀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 2) 평생학습관련 시설의 대폭적인 정비확충

평생교육 시설을 접근성에 기초하여 제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지역인 동단위의 평생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3)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및 상담기회 확대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의 제한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DB구축 및 체계적 홍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과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 저학력계층에 대한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 4) 평생학습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마인드의 제공

대단히 중요한 제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관련 부서를 시청, 구청에 설치 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 5) 평생학습자에 대한 지원체계 제시

역시 중요한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좌제가 실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행정, 재정 등 모든 요소에서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잠재력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울시 차원의 평생학습도시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 된다. 서울은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그러한 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로의 전환이 반드시 요구된다.

둘째,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사정이 월등하게 높다. 그러한 재정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한다. 특히 평생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복지의 지름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을 통한 생산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제정과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 해나가야 한다.

넷째, 소외계층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그 지역과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토론 2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

김 미 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김 미 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평생교육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서울 지역의 평생교육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한 조사임.
- 가구조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data의 신뢰성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특히, 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평생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었음.
  - 이런 조사내용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전국적인 조사로서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 자료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조사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조사에서 행해진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첫째, 표집규모의 대표성 문제. 이것은 조사 비용과 연계되므로, 연구진의 노력보다는 이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다 중요할 것임. 즉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 대표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됨. 따라서 향후, 본 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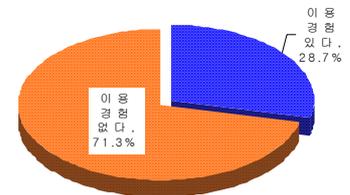
둘째,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조사 설계라고 보아짐. 여기서 표본 추출을 구별×성별×연령별로 하였는데, 이 경우 5쪽 응답자 특성에서 이런 매트릭스가 구축되어야 함. 즉, 단순히 성별, 연령별, 구별로 사례수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

사례수를 추출한 것이 제시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성별, 연령별로 한 곳에 집중될 수 있음. 예컨대, 남성은 중구에서 30-34세에 집중될 수 있음. 따라서 표집의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조사 결과 분석에서 응답자 특성을 고려해서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본 조사는 자료의 <표 6>에서 보듯이, 교육활동 참여자 287명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참여 실태의 목적, 분야, 장소, 방식, 비용, 정보, 효과 등을 분석한 것임. 287명이 서울시의 평생교육활동 참여 실태를 대표하기에는(이는 표집규모와도 연계) 미흡하다고 보아짐.

<표 6> 평생교육활동 참여 경험

응답 항목	빈도(명)	%
경험	287	28.7
비경험	713	71.3
계	1,000	100.0



넷째, 조사결과 분석에 있어서, 분석의 틀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음. 각 항목별로 기본적인 개인 배경 정보이외에 조사 문항(예컨대, 참여-미참여라든지 목적 등)에 의한 변인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분석 틀에서 미리 제시해 줌으로 인하여 항목별로 의미있는 변인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분석의 초점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임.

다섯째, 평생학습 참여분야가 자료의 <표 11>과 같이 빈도수가 매우 적어(중복응답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수로 참여 장소, 방식 등 참여 실태를 분석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물론 참여분야별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표집 규모 및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여 다른 변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짐. 이것은 표집규모와 분석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고려됨.

&lt;표 11&gt; 평생학습 교육 참여 분야

응답 항목	빈도수(명)	%
건강,보건,스포츠 관련 교육	91	31.7
취미,오락,여가 관련 교육	85	29.6
자기계발 관련 교육	62	21.6
기초,교양,문화 관련 교육	22	7.7
학력, 학점 인정 교육	7	2.4
시민,안보,경제,사회참여 관련 교육	3	1.0

※ 중복응답

마지막으로, 향후 이 조사가 기초가 되어 전국적 조사나 주기적 조사의 기본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고려하여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을 명확히 정의 내리고 사용할 필요가 있음(3장 조사결과에서 평생교육 활동 참여 경험이라는 소제목 하에 평생학습 교육 참여(이하 동일). ‘평생교육 참여’인지 ‘평생학습 참여’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참여 형태에서 비참여-미참여, 직업-경력향상 등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아짐.

토론 3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

신 경 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신 경 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 제기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일단 평생교육을 위한 법제도 차원의 기반은 마련되었다. 평생교육법(재2조)에는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평생교육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의 이면에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행정상 또는 정치상의 편의를 적용하고 있을 뿐, 평생학습사회에서 실제 요구되는 평생교육의 지향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참여가 법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관련된 핵심적인 법조항들이 현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행정체계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법 자체가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참여 자체를 오히려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 2. 서울시가 지향해야하는 평생교육정책 방향은?

- 서울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들어 서울시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원정책과 관련해 기존에는 공원 시설 건설이란 하드웨어 공급측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공원업무 관련 행정부서에서 생태교육 강좌 개설, 또는 공원에서의 문화예술행사와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도 중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재해, 안전 관련 행정업무에서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대처교육, 교통안

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정책 분야에서도 예방이 주요 정책방향의 하나가 되면서 건강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경제나 복지와 관련한 직업, 취업, 창업 강좌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전 행정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서울시의 행정 자체가 평생교육 기관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 행정업무에서 주민 대상의 교육업무 비중이 커지는 것은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도시에서 평생학습도시현장을 제정하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현재 서울시의 행정 업무에서 실제 다양하고 많은 평생교육사업이 진행(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참여 장소로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비율이 높음) 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사업들이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정책 방향성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제 평생교육 기관화가 되어가면서도, 서울시 행정에서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란 용어도 생소하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의 하나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된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제를 들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교육으로 규정해 놓고, 실제 평생교육 업무를 학교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교육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국 하에 평생학습정책과가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는 교육정책국 하에 평생교육체육과가 있다. 일반행정과 분리되어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다고 해도 실은 유명무실할 부서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교육청에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부서는 있으나 실제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나 관심이 없어 유명무실하며, 반대로 서울시는 평생교육이란 이름을 갖지 못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 평생교육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 일차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해 서울시가 해야할 일은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체제를 갖추어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에서부터, 직업훈련학교, 시민대학을 비롯한 교육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외국 대학과 연계한 사이버 원격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 3. 서울지역 평생교육 수요조사에 대해...

-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성격을 갖는 연구이기는 하나, 이 조사를 기반으로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을 제안하기에는 조사내용이나 조사결과 분석이 느슨한 감이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관심도, 참여영역, 선호도 등이 밝혀진 것은 중요하나, 이것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조사결과분석이 너무 단순한 점이 아쉽다.

토론 4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

이 창 기

대전평생교육연합회 회장,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 이 창 기

(대전평생교육연합회 회장,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평생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은 여전히 일제시대 이래의 국민통제를 위한 사회교육의 변형에 불과하며,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평생교육실태조사와 수요조사’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온 연구에 비해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평생학습의 문제점과 시민의 요구사항은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결과처럼 노년인구와 구도심권의 주류를 이루는 서민들의 평생학습욕구가 저급하다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유인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평생학습 참여경험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95.2%)과 행동(28.7%)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것에 비추어 우리 나라가 여전히 평생학습 후진국임을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평생학습참여분야가 건강, 보건, 오락(55.4%) 등에 치우쳐 있어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인적자원개발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시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자본형성프로그램도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경로가 구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평생학습홍보가 얼마나 전근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생학습홍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평에 덧붙여 본 토론자가 최근 지역의 평생학습을 총괄하고 있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생학습의 애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마도 서울시 평생학습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모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 평생학습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생학습사회가 건설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이러한 평생학습 건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학습이 정말 왜 필요한 지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평생학습담당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련공무원들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해도,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운영할 휴먼웨어의 인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에게는 평생학습이 무엇이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평생학습이 필요함을 대중매체나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배포를 통하여 학습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평생학습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에게는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별도의 연수를 통해 이해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담당자들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교수요원 및 강사, 그리고 평생교육담당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들고 있었다. 평생학습담당자들의 경우 명목만 평생학습담당자이지 실질적으로는 평생학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지역센터와 평생학습관 운영에 참여하게 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연수를 중앙의 평생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요원 및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로 '평생교육전문가인력풀제(가칭)'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동시에 현재 꽃꽂이, 붓글씨, 헤어디자인, 요리강좌 등에 전문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윤리까지를 별도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센터에서 활동하게 될 영역별 전문 교/강사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및 학습에 대한 전문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평생학습관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노후화와 부족이다. 교육의 질은 가르치는 사람의 질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에서만 적용된다. 현대처럼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의 질 못지않게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본적 교육환경의 구비가 역시 중요하다. 이제는 과거처럼 강의실에 칠판과 딱딱한 의자만 구비되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학습자 또한 과거와는 달리 최첨단 교육기자재를 갖춘 학습환경을 원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최소한 학습환경을 구비하지 않고서는 어떤 평생학습관도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평생학습관의 수를 늘리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평생학습관의 학습환경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운영하게 되면 결국 평생학습사회 건설의 구심체로서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설립된 지역의 평생학습관은 적어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강의실과 실습실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 시설 자체도 냉난방, 조명, 소음방지 등의 장치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는 평생학습관 설립 및 시설 구비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평생학습관의 경우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려 해도 지도해 줄 교수요원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교수요원 확보를 돕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제기한 바 있는 '평생교육전문가인력풀체(가칭)'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립될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기 운영된 지역 평생학습관의 경우 대부분이 별다른 행·재정적 지원 없이 운영되었던 관계로 시설이나 기자재 확보, 기타 정보화 설비 등에 있어서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 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각종 사설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밀려 지역 평생학습관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쉬울 것이다. 새로이 제정된 평생교육법 제 11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경비 지원 방식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경비 지원이 일차적이겠으나 전기, 수도, 전화, 전송,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공공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교육기자재 임대 또는 구입비, 교육시설이나 공간의 임대 또는 구입비 등을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의 다양한 지원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실 평생학습이란 학습도구와 조직화된 '틀'에 의해 진행되어온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 나아가서 지역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정체성'의 확립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둔 생활적응과정으로서의 평생학습지향 및 실현 그리고 지방행정의 양적·질적 향상 및 삶의 질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의 교육자치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평생학습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과 당해 지역의 각종 공공시설과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각종 행정행위를 관장하는 자치단체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고유업

무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현재 지방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평생교육법에 언급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 평생학습의 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교육 인적자원부와 지방교육청이 지역평생학습관에 지원할 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에 부분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지역평생교육시스템구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청 업무영역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방교육청의 업무분장을 보면 평생학습은 다른 업무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 그야말로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전문행정인력들이 학교교육의 마인드로 평생학습에 관한 행정 및 정책을 이끌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과정이 평생의 학습과정이고 학교와 직업세계의 전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청의 현재 업무영역에서 평생교육과 진로교육을 통합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경력개발 및 상담의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분야는 학교교육과는 또 다른 축으로 교사출신이나 장학사가 아닌 전문인력들(예컨대 평생교육사, 인적자원개발전문가, 경력개발전문가, 직업상담사 등)이 배치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아래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과 실행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